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올해도 시행

순창군, 24일~3월 10일 신청 접수... 매일 15만원 저축하면 군에서 30만원 지원

순창군(군수 최영일)이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온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이 올해도 시행 3년차를 맞았다.

2023년 첫 발을 내딛은 이 사업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미래 설계를 돕는 순창군의 대표적인 청년지원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735명의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청년들이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군에서 그 두 배인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2년간 적립 시 청년들은 최소 1,080만원과 이자를 합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는 1기 참여자들이 5월 만기 지급을 앞두고 있어, 6월 이후 첫

종자통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의 현금성 지원 정책이 줄어들어는 가운데, 순창군은 군비로 지원사업을 지속 운영하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순창군이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되면서 확보한 도비 2억 4천만 원은 사업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18세부터 49세까지로, 주민등록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청년이다.

또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7,072,000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는 새롭게 200명의 청년을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들은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청년문화센터 1층 인공극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화(063-650-1562, 1587)로 하면 된다.

최영일 군수수는 "이번 종자통장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너

많은 청년들이 순창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종자통장 지원사업이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는 최경식 남원시장이 주관해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19일까지 2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민들과의 '2025 시민공감 열린대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시민공감 열린대화’ 성료

최경식 남원시장, 23개 읍면동 순회하며 시민과 소통 나서

남원시는 최경식 남원시장이 주관해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19일까지 2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민들과의 '2025 시민공감 열린대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시민공감 열린대화는 민선 8기 출범 3년차를 맞은 최 시장이 시의 미래 비전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민선 8기 시정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번 대화에는 각 읍면동에서 2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으며, 시민들은 시의 현안과 미래 비전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누었고, 특히 시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내며 시의 발전 방향에 대한 기대와 함께,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제시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민들이 제안한 민원과 건의사항은

총 130여건에 달했으며, 이 내용들은 향후 남원시의 정책에 중요한 반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개진한 의견들은 주거 환경 개선,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으며, 시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들에 대한 개진책을 마련하고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이번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화를 마친 최 시장은 "시민들이 제시한 민원과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남원시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원시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장시정실, 기업체 및 사회복지 시설 등을 방문하는 '남원시장이 간다' 등의 소통행정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임실군자치단체노동조합 · 임금교섭 상향례 가져

임실군과 임실군자치단체노동조합이 지난 18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노사 양측 교섭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단체교섭, 2024년 임금 교섭 상향례 자리를 가졌다.

상향례는 사측 대표 교섭위원 이진관 부군수 등 7명의 위원과 노조측 대표 교섭위원 이상배 위원장 등 5명이 참석했으며, 노사 양측 대표위원 인사로 시작으로 양측의 기본 임금 전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상향례 이후 노사가 협의해 교섭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실무교섭을 통해 양측의 의견차를 좁혀나감, 본교섭을 갖는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진관 부군수는 "오늘 이 자리 노사 간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존중하고 대화를 통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사 상생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최일선에서 묵묵히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는 근로자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무료 암 검진 사업 본격 추진

순창군이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암 조기 발견을 유도하기 위해 순창군민 무료검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기존 폐암, 전립선암 무료검진에 이어 올해 신규로 난소종양 표지자 검사도 실시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 관한 무료 검진을 제공해 군민 모두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순창군은 폐암뿐만 아니라 남성 전립선암과 여성 난소암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을 시행할 계획이다.

검진 대상자는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검진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전립선암 300명, 난소암 100명, 폐암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세부적인 검진 대상 기준은 순창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보건의료원 건강검진팀(063-650-5313)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120민원봉사대 '찾아가는 현장민원' 시작

시민·현장 중심 봉사행정 추진

남원시는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120민원봉사대 '찾아가는 현장민원'을 지난 18일 수지면 내호곡, 유촌마을을 시작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찾아가는 현장민원 이동빨래방 차량 1대를 추가 구입(총 2대 운영)해 사업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위생·청결 취약가구 생활환경 개선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대비 2배의 마을을 선정해 총 300개 마을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보일러·농기계 점검 및 수리, 이동빨래방, 청소, 정신건강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봉사도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결하려 한다.



남원시는 120민원봉사대 '찾아가는 현장민원'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20민원봉사대 확대 운영으로 시민들의 생활 속 작은 불편사항이 보다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도 시민만족 100%를

목표로 시민중심·현장중심 봉사행정을 추진, 120민원봉사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대표번호(120)로 연락하면 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노후차 조기 폐차 지원 확대

임실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5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차 202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자는 20일부터 군청 환경보호과, 각 읍·면사무소로 방문 또는 온라인(자동차배출가스 종합검정시스템 www.mecar.or.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

등급 경우 차량과 5등급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중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다.

다만, 정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경우 이외 휘발유, 가스 등도 신청 가능하며, 총중량 3.5t 미만 5등급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기본지원률 100%를 지원, 신차 구입 시 기본지원률 50%가 추가 지원된다.

심 민 군수는 "기후 위기 대응 그린리더로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며 "보조금 지원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고용노동부 '청년성장 프로젝트' 선정

남원시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성장 프로젝트(총사업비 1억 120만원)에 선정되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15~45세 남원시 및 자라산권 청년 1,400명을 대상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부터 구직활동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성장프로그램이며,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청년친화 인프라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경력(재)설계를 위한 스터디, 멘토링 프로그램 등 △네트워킹 교류 △집단지리상담 △니트칭년일상지원 △사회초년생 기본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프로그램 이수 후 민선 8기 기업연계형 취업 프로그램인 '남원형 킥스타트 사업'을 통해 취업을 앞선해 지속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남원 청년·창업센터 '청년마루'를 통해 오는 3월부터 대상자를 모집해 프로그램을 본격 진행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